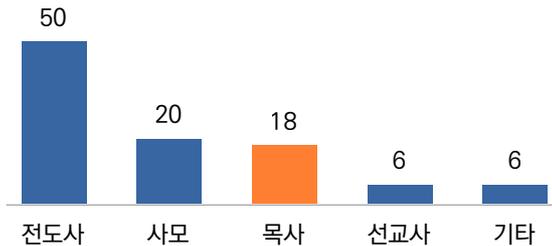




## 총신대 신대원 여성 졸업생, 안수받은 '목사' 비중은 10명 중 2명(18%)에 그쳐

- ▶ 현재 한국교회에서 여성목사 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교단들이 있는데, 그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 속하는 '총신 신대원'의 '여동문회'에서 최근 여성 동문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동문회 사역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.
- ▶ 현재 직분을 묻는 문항에 전도사가 50%로 가장 많았고, 사모 20%, 목사 18%\*\* , 선교사 6% 순이었다. 목사 안수를 받고 '목사'가 된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.

[그림] 총신대 신대원 여성 졸업생 현재 직분 (%)



\*자료 출처 : 국민일보, 여성목사 안수 불허 예정합동, 여성 인재 이탈 심각 기사 참조, 2022.06.22. (<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251388&code=23111111&sid1=chr>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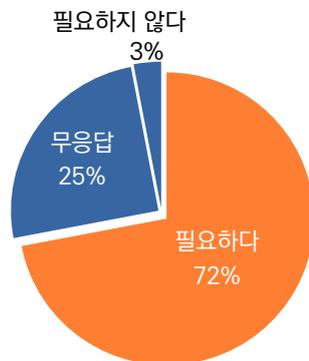
\*원자료 출처 : 총신대신대원 여동문회, '2022년 여동문회 사역현황 실태조사', 2022.06.15. (총신대신대원 졸업생 및 재학생 224명, 2022.05.20.-06.09)

\*\*정확한 수치는 목사와 강도사가 각각 17.8%(40명), 0.4%(1명)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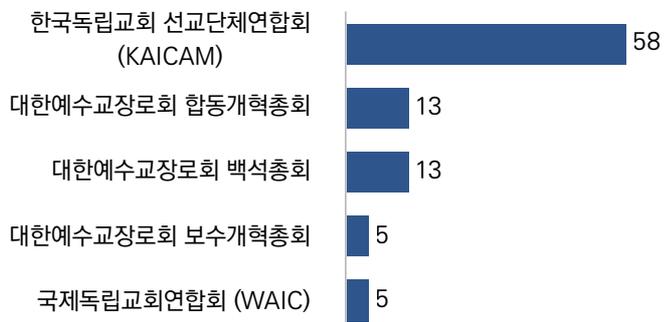
## ◎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, '여성안수 필요하다' 72%

- ▶ 여성 목사 안수 불허에 대해 여동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? '여성 안수'가 필요한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72%는 '여성의 목사 안수가 필요하다'고 답했고, '필요하지 않다'는 의견은 3%에 그쳤다.
- ▶ 그럼, 총신 신대원 여동문 중 목사안수를 받은 여성목사는 어떤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알아 본 결과, 절반 이상(58%)이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(KAICAM)라고 응답했다. 그 외에 예정 합동개혁총회와 예정 백석총회가 각각 13%를 차지했다.

[그림] 여성 목사 안수의 필요성



[그림] 안수받은 교단 (목사 안수 받은 여동문 대상, 상위 5개, %)



\*자료 출처 : 국민일보, 여성목사 안수 불허 예정합동, 여성 인재 이탈 심각 기사 참조, 2022.06.22. (<https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251388&code=23111111&sid1=chr>)

<원자료 출처 : 총신대신대원 여동문회, '2022년 여동문회 사역현황 실태조사', 2022.06.15.(총신대신대원 졸업생 및 재학생 224명, 2022.05.20.-06.09)